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6월 12일
제1900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 무 실: 703 968 3010　　팩　　스: 703 968 3013
주　　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요한 16,15)

〈성 삼위일체〉, 헨드릭 반 발렌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다해)

제 1 독 서 **잠언 8,22-31** |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지혜는 태어났다.

화 답 송 **시편 8,4-5.6-7.8-9** |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제 2 독 서 **로마 5,1-5**
우리는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복　　음 **요한 16,12-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2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초기 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다. 삼위일체 대축일이 로마 전례력에 들어온 것은 14세기, 요한 22세 교황 때이다.

바오로 딸 콘텐츠

✝복음 묵상

제1독서는 심연이 생기기 전,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지혜'가 있었음을 전합니다. 영원에서부터 계시는 그 지혜는 바로 '말씀'(로고스)이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요한 1,1-2 참조). 창세기는 한 처음에 '하느님의 영'이 함께 계셨음을 전합니다(1,2 참조). 이런 까닭에 한낱 미천한 인간 피조물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논한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복음 말씀은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친밀한 관계를 잘 보여 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느님과 언제나 일치를 이루십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요한 17,10)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요한 14,9). 하느님 계시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어 하느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 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어 제자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며 성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며 은총 속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그 희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믿음, 희망,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먼저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믿음, 희망, 사랑으로 지극히 충만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바랍니다.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섭리에 감사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시편 8,2.5) 〈이민영 예레미야 신부〉

묵상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힘든 신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질적인 조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는 오늘 이 대축일을 통해 하느님을 기념합니다. 곧 유일한 하느님의 신비를 기념합니다. 이 하느님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위격은 세 분이시지만,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도 하느님이시고, 성자도 하느님이시며, 성령도 하느님이십니다. 하지만 세 분의 하느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 위격을 지니신 유일한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신비입니다. 곧 **성삼위**입니다.

오늘 이 신비를 거행하기 위해 잠시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위격(persona)이란 하느님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참되고, 다양하고, 서로 구별되는 위격들입니다. 세 분의 위격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부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나에게 구원과 의로움을 주시는 성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머무시고 교회에 머무시는 성령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계시를 요약해주는, 성 요한의 표현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8.16).

성부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성자 하느님도 사랑이시고, 성령 하느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이신 한, 비록 유일하고 한 분이시지만, 고독하신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친교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무한하고 독창적인 현실 안에서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며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자께서도 성부께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분들 상호 간의 사랑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들 간 일치의 유대이십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 이 신비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랑과 빛의 신비를 관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부터 왔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의 지상 여정이 향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2021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전문 보기 :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1-05/pa-pa-francesco-angelus-solennita-ss-trinita-unita-chiesa.html〉

축하합니다! 알링턴 교구 성인 견진식

알링턴 교구 성인 견진식이 지난 6월 5일(일)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 집전으로 성 토마스 모어 주교좌성당에서 열렸다. 총 150명의 견진자 중 본당에서는 20명이 견진을 받았다. 그동안 견진 대상자들은 3주간의 교육과 면담, 고해성사를 통해서 견진을 준비했다.

대부모와 가족들의 축복 속에 거행된 견진식 미사에서 버빗지 주교님은 “세상이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인호가 바로 그 용기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하며 견진 대상자들이 충실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했다.

세례 갱신식과 도유 예절을 통해 다시 한번 거듭난 견진자들은 한층 견고해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희망하며 서로 기쁨을 나눴다. (교육부)

1 혼인 갱신식

- 일시 : 6월 12일(일) 10시 미사 중
- 예수님과 성 요셉, 성모님이 이루신 가정을 본받아 일생 신의를 지키며 살아온 부부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2 원주 영산성당 신축 모금을 위한 미사

- 일시 : 6월 11일(토) – 6월 12일(일) 주일 미사
- 지난 주 우리 공동체에 고국에 대한 향수를 심어주고자 깜짝 선물로 고춧가루를 나누어 주신 영산성당 김베드로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500g짜리 500개가 수량이 부족하여 받지 못한 신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만불이 넘는 돈을 지불하며 고춧가루를 갖고 오신 신부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신부님께서 지으시는 하느님의 성전이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나누어드린 약정서에 일시봉헌이나 분할봉헌으로 약정해 주시고 약정금액은 사무실이나 주일에 카리타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Pay Order는 Caritas로 하시고
  MEMO는 영산성당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3 단체장 회의

- 일시 : 6월 12일(일) 오전 11:30(B-3,4)

4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6월 12일(일) 오후 1시(B-3,4)

5 첫 영성체식

- 일시 : 6월 19일(일) 오전 10시 미사 중
- 27명의 어린이들이 첫 영성체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성체성사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이신부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첫 영성체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리셉션 : 오후 12시(하상관 #110)

6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6월 19일(일) 오전 11:30(B-3,4)

7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6월 19일(일) 오전 11:30(A-1,2,3,4)

8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6월 19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9 총회장 선거

- 총회장 추천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장은 여러분들이 추천한 사람들 중 다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선과 누락된 분들의 개인보호 차원에서 다 추천을 받은 현 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운영부회장 이수호 미카엘, 루카회 회장 강세원 바오로 형제 중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총 회장 대상자 추천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알링턴 교구 2022 WorkCamp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CYO WorkCamp 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성인 Crew Leader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모든 학생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봉사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 6월 19일(일) – 6월 24일(금)

Arlington Diocese Prayer for WorkCamp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serve You through those I serve at WorkCamp.

Help me to accept the graces you offer through my time of humble service to those in need.

Bless those I serve, that they may feel Your presence.

Remind me that I am Your hands and feet on earth.

Please help me to imitate your servant, St. Joseph the Worker, in all the work I do to grow in holiness and virtue, and to let it all be for Your greater glory.

Amen.

교황님의 6월 기도 지향 가정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6월 5일(성령 강림 대축일)

주일 헌금	$ 7,417.00
교무금	$ 10,740.00
교무금(신용카드)	$ 3,150.00
감사 헌금	$ 790.00
온라인 봉헌	$ 2,955.00
합계	**$ 25,052.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6월 16일(목) 오후 5:00-6:00
6월 17일(금) 저녁 8:00-9:00
6월 19일(일) 오전 6:00-7:00

1.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일 미사 강론
2. 윤원진 신부의 위대한 성인들 :
   라우렌시오 부제 -
   "이제 다 익었으니 뒤집어 주시오"

DIOCESE OF ARLINGTON
1974-2024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home/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